



# 대선주조 (주)

2010년 1월 21일 부산 KBS홀에서 부산시민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80주년을 기념한 '16.7 콘서트'를 성황리에 열었다.



## 지역 기업 무료 홍보 지원

대선주조(주)(대표이사 주양일)는 2월 22일 부산,경남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원소주 보조상표에 기업을 무료로 홍보 할 수 있는 '지역 경제발전의 주역, 부산·경남 기업! 시원소주가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창립 80주년을 기념하여 연중으로 진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부산·경남 지역의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접수는 2월 22일(월)부터 대선주조 ([www.c1soju.co.kr](http://www.c1soju.co.kr))와 봄봄 홈페이지 ([www.bombomsoju.co.kr](http://www.bombomsoju.co.kr))에서 진행 중이다.



## 부산영화 '카멜리아' 제작지원 협약 체결

대선주조는 2월 2일 대선주조 본사에서 영화 '카멜리아' 제작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카멜리아'는 ㈜발콘이 제작하고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대표 프로듀서를 맡은 영화로 100% 부산 윌로케이션으로 제작되며 한국과 일본, 태국 3개국 감독들이 참여해 서로 다른 3편의 사랑 이야기를 담는다. 올해 5월 칸느 영화제 출품을 목표로한 '카멜리아'는 '동백'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이다.

## 창립 80주년 기념 16.7 콘서트 열어

대선주조는 1월 21일 부산 KBS홀에서 부산시민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80주년을 기념한 '16.7 콘서트'를 성황리에 열었다. 대선주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 시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평소 문화 생활을 누리기 힘든 계층과 사회복지사를 초청하여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콘서트 현장에서 막대한 지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티 난민 구호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회사 성금까지 합쳐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여 기부할 계획이다.



## (주)롯데주류BG



### 우리 청주 고급화·대중화 본격 시동

(주)롯데주류BG(대표 김영규)가 올해를 '우리 청주 활성화 원년'으로 정하고, 청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청주 품평회 개최, 문화행사를 통한 청주 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원료 고급화로 품질 향상' 등의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월 26일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번째 행사로 지난 1월 22일 군산공장에서 '청주 품평회'를 열었다.

청주 품평회는 3개월 전부터 생산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4팀과 연구소에서 설화, 국향 등의 제조법을 기본으로 하여 총 15가지의 각기 다른 제조방법으로 만든 새로운 청주를 개발, 심사위원들에게 맛과 품질을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청주의 품질 업그레이드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청주 전용 쌀품종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군산지역 쌀 사용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부산 사랑의열매에 사랑의 천사운동 성금 전달

롯데주류BG는 1월 14일 부산사랑의열매(회장 김종렬) 회의실에서 '처음처럼' 사랑의 1004운동을 통해 병당 20원씩 적립해 모은 성금 1004만원을 전달했다.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사랑의 1004운동은 이번이 네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4,016만원을 전달했다.



### '처음처럼' 강원도지사 표창 수상

롯데주류BG 처음처럼은 12월 29일 원주시청 주민생활국에서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주)롯데주류 원주지점은 처음처럼 1병당 30원씩 기금을 마련해 천사운동기금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012만원을 원주시에 기탁해왔다.

## (주)무학

2010년 1월 14일 (주)무학(대표이사 최재호)이 인재육성과 학문 장려를 위해 창원대학교에 발전기금 2억원을 기탁했다.



### 창원대에 발전기금 기탁

(주)무학(대표이사 최재호)이 인재육성과 학문 장려를 위해 창원대학교에 발전기금 2억원을 기탁했다.

창원대는 1월 14일 오전 박성호 총장과 최재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주)무학으로부터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최재호 회장은 "2010년 경인년은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창원대가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발전의 이끌어나가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기탁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발전기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3억 1천450만 원을 창원대에 후원했다.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MOU

무학은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내년 중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 12월 28일 오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남지사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자회사를 만들면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자회사 표준 사업장을 만들면 장애인 직원이 전혀 없어도 의무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설립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준다.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재활법은 50인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는 직원 5% 범위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6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의무고용율을 유지하고 있는 무학은 자회사도 100% 출자해 만들 계획이며 향후 생산인력 파견, 유지보수, 경비 등의 직무에 11명 이상의 장애인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보해양조(주)



### 2월 18일 창립 60주년 맞아

(주)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2월 18일로 창립 60주년을 맞았으며 2월 17일 목포 본사와 각 지점, 공장별로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업무유공사원 27명, 장기근속사원 44명 등 총 7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보해는 30년 근속 사원과 20년 근속 사원에게 순금 10돈의 금메달을, 10년 근속사원에게는 순금 5돈의 금반지를 부상으로 전달했다.



### 젊은 앞새,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젊은 앞새 사랑 나누미' 10기 봉사단 70여명은 1월 16일 서울, 광주, 목포, 순천 등 각 지역에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 첫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서울지역 봉사단은 이날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고치기' 프로그램에 참여, 경기도 성남시 은행2동의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하며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 또한 광주,목포,순천지역 봉사단도 '사랑의 밥퍼' 활동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 임건우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임건우 회장은 12월 21일 서울 GS타워에서 열린 노동부 주관 '2009년 노사상생 및 일자리 창출지원 유공자 시상식'에서 노사상생 유공자 부문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보해양조는 1978년 출범한 보해노동조합과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기업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있어 31년 무분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임건우 회장은 매 분기별로 개최된 노사협의회 이외에도 수시로 노-사간의 접촉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양보교섭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 (주)선양



‘에코원선양 마사이마라톤’ 오는 5월 9일 계족산에서 열린다.

‘에코원선양 마사이마라톤’이 2010년 5월 9일 계족산 숲속 황톳길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지난해 5천여명의 참가자가 맨발로 걸거나 달리는 이색행사로 해외에까지 알려져 전세계 37개국에서 외국인인 600여명이나 참가하는 대전의 대표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에코원선양 마사이마라톤’은 맨발걷기의 즐거움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운래 회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올해는 ‘에코원선양 마사이마라톤’축제가 대전의 1등 대표축제로 발돋움한다. 이미 전국참가자는 물론 외국인 참가자까지 몰려 유명 이색축제로 이름을 알렸고 올해는 대전의 자치단체와 6개 언론사가 후원하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대표축제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더불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동참해 참가자들에게 대전의 문화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5km 가족맨발걷기코스과 13km 맨발달리기코스로 진행되는 대회 참가비는 1km당 1,000원씩으로 5,000원과 13,000원이지만 전액 다문화가족과 사랑 사랑 도시락 캠페인에 기부된다. 또 운동량이 부족한 젊은층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29세 이하 참가자들에게는 참가비를 무료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참가자들에게 메달과 이색 기념품을 지급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이벤트도 선물한다.

〈에코원선양 마사이마라톤대회 요강〉

일시	2010년 5월 9일(일) 오전 10시
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계족산 숲길
종목	5km가족맨발걷기코스 / 13km 맨발달리기코스
참가신청	2010년 2월 1일 ~ 4월 23일 (마사이마라톤 홈페이지 <a href="http://www.masaimarathon.com">www.masaimarathon.com</a> )
참가비	5km(5,000원), 13km(13,000원)/29세 이하 무료
주최	에코원 선양
주관	에코원선양 마라톤조직위원회

## (주)진로



### '참이슬 삼행시 공모전' 당선작 선정

진로(대표이사 윤종웅)는 '참이슬 삼행시 공모전' 당선작을 선정하고, 2월 9일 진로 본사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참이슬 삼행시 공모전'에는 총 202,622명이 참여해 뛰어난 재치를 선보였으며, 15편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장원에는 '참붕어 뛰는 새벽 저수지, 이슬 맺힌 초릿대의 떨림, 슬쩍 잡아채니 월척이구나', 차상에는 '참이슬 한잔 오랜 벗 안주삼아, 이세상 시름 한 켠 접어두고, 슬며시 가는 세월 붙잡아보네', 차하에는 '참을성을 기르니 성공하고, 이해심을 배우니 사랑이 오고, 슬기롭게 행하니 존경을 받네'가 선정됐다.

### 제2회 진로문학상 시상식

제2회 진로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23일 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열려 문학평론가 이규식씨와 시인 김동준씨가 각각 대상과 작품상을 수상했다. 진로가 지역 문인 양성과 문학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후원하고 있는 진로문학상은 대상 300만원, 작품상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 가운데 대전문인협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 진로 참이슬 리뉴얼 출시

진로는 소주 '참이슬 오리지널'(20.1도)과 '참이슬 프레시'(19.5도)의 리뉴얼 제품을 지난 12월 17일 출시했다.

새 제품은 대나무 활성숯 정제 공법을 적용, 깨끗한 맛을 강화하고 목넘김을 한결 부드럽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모두 상표 디자인을 개선,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시켰다. 참이슬 오리지널은 붉은 색상으로 우리나라 대표 소주의 정통성과 자신감을, 참이슬 프레시는 푸른 색상으로 맑고 깨끗함을 표현했다.

또 친근한 느낌의 12가지 카툰을 그려 넣고 '참 힘들었습니다, 이젠 걱정 없습니다, 슬럼프 100%탈출'과 같이 삼행시를 곁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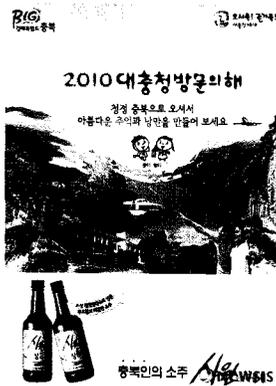
## (주) 충북소주

충북소주(주)는 1993년 12월 24일 설립된 충북소주(주)는 1993년 12월 24일 설립된 충북소주(주)는 1993년 12월 24일 설립된



###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

(주)충북소주(대표이사 장덕수)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에 나선다. 임태영 제천시장과 장덕수 충북소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7일 충북소주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가 한방엑스포 성공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소주는 앞으로 생산되는 '시원소주' 등 충북소주 제품 라벨에 한방엑스포 홍보 도안을 삽입하게 된다. 또 충북소주가 제작하는 홍보 포스터 등에도 한방엑스포 홍보 도안이 새겨진다.



###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성공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

충북소주는 1. 21(목)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성공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충청북도청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소주는 자사의 상표와 포스터를 통해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충북도는 충북소주의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충북도는 금년 12월말까지 1년간 충북소주의 주력상품인 「시원한 청풍」 5,400만병의 보조상표와 포스터 3만부를 활용하여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전국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장덕수 사장 농식품부장관 표창 수상

장덕수 사장이 지난 12월 24일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장 대표는 음식점 등에 공급되는 소주병 라벨을 이용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정착과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 등 공익형 농업정책 안내에 앞장섰다. 또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업경영인 충북연합회 자녀를 대상으로 1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데다 2005년부터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와 1사촌 자매결연한 뒤 해마다 전 직원이 농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하이트주조 · 주정(주)



### 하이트소주 병당 3원씩 모아 이웃돕기 보은

하이트주조·주정(주) (대표이사 윤기노)는 지난 12월 17일 지난해 7월부터 소주 1병을 판매할 때마다 3원씩 '전북사랑기금'으로 5개월간 적립해온 적립금을 전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다.

하이트주조가 5개월간 재작년만큼만 매출을 올렸어도 목표했던 3,000만원 넘게 전달할 수 있었는데 이날 전한 것은 2,580만원이었다. 이 금액도 매출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낸 성금 350만원을 빼면 2,230만원에 그친다.

하이트주조는 이날 기탁금으로 어려운 이웃에 보낼 지역 쌀(10kg들이 1,289포대)을 구입했다.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지역 농민들을 위하자는 것이었다. 회사 기금 350만원은 전북 14개 시군 중 적립금이 100만원이 못되는 4개 시군 소외계층에도 고루 쌀을 보내자는 뜻이었다. 당초 시·군 적립액대로 기금을 배분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이트소주 애용 캠페인은 전북도와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 (주)서안주정



### 정태만 부사장 독도연구상 수상

정태만 서안주정(주) 부사장은 지난 2009년12월22일 “독도는 왜 우리땅인가?” 주제의 홈페이지(dokdostudy.net) 제작·운영, 동영상 제작, 『독도 문제의 수학적 접근』 논문 발표 등 독도 연구 활동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이 주관하는 제1회 독도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주)한라산

### 한라산소주의 '특별한 나눔' 눈길

(주)한라산(대표이사 현승탁)은 2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연된 '김장훈,사이의 윈터치 전국투어'에 도내 소년소녀가장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조손가정, 위탁아동 등 100명에 대한 입장료를 지원했다. 이번 문화공연 입장료 지원은 생활형편 등의 이유로 공연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해 또다른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나눔 행사로, 도내 처음으로 시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라산은 이날 입장료 뿐만 아니라 차량과 기념품 등도 지원했는데, 공연을 관람한 참가 청소년과 인솔 교사 등은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한라산 소주에 고맙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19.3도 참나무통 숙성 웰빙소주 '한라산 순' 출시

한라산이 화산 지하 암반수와 참나무통 숙성증류주로 브랜드인 웰빙소주 '한라산 순(純)'을 출시했다.

2월 25일 부터 새로 선보인 '한라산 순'은 용량 360mL, 알코올 도수 19.3도의 순한 소주이다. 장기간 숙성시킨 증류식 소주 원액을 첨가한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급 소주를 표방하고 있다.

그동안 인기를 받아온 '한라산물 순한소주'보다 용량을 60mL 늘리면서 젊은 층과 여성 등의 소비자 취향에 맞게 알코올 도수를 0.5도 낮췄다. 여기에 아스파라긴으로 순한 맛을 내 더 맑고 깨끗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지녔다는 평이다.



## 오비맥주(주)



### 카스 선전에 힘입은 '갈목성장' 빛났다!

오비맥주(대표이사 이호림)가 지난해 국내 맥주시장이 전년에 비해 2.7%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표 브랜드 '카스'의 저력을 기반으로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눈에 띄게 선전했다.

오비맥주는 2009년 7,905만 상자(500mlx20병)를 판매하여, 2008년 대비 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지속 성장을 일궈온 카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36.5%의 누적 점유율을 기록, 전전년 동기 대비 3%p 더욱 상승하며 오비맥주의 성장을 견인했다.

### 지속성장 일궈낸 오비맥주, 수출도 잘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국내 맥주 수출량의 60%에 달하는 약 779만 상자(500ml x 20병 기준)를 수출, 2008년 대비 24.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 국내 맥주 수출 1위 자리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특히, 지난해 일본에만 380만 상자(500ml x 20병 기준)를 수출, 2008년에 비해 무려 6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며 오비맥주의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오비맥주는 2012년까지 칭따오 맥주를 제치고 아시아 최대 맥주 수출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계획이다.



### 젊음의 대표 맥주 '카스', '뮤직드라마'로 CF계 새 장을 열다!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특한 젊음의 대표 맥주 '카스'는 광고업계 최초로 '뮤직드라마'를 활용한 시리즈 광고를 선보이며, 기존 뮤직비디오 형식의 산다라, 이민호의 광고에서 한층 진일보한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다.

대한민국 대표 패셔니스타 '윤은혜'와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젊음의 대표 아이콘 '닉쿤'과 '택연'이 펼치는 특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카스 뮤직드라마'는 12분 분량의 미니드라마 형식이다.



## 하이트맥주(주)



### 日 카와소푸드사와 업무제휴 계약 체결

하이트맥주(대표이사 김지현)는 진로재팬, 일본 카와소푸드사(川商FOODS株式会社)와 1월 19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수출 브랜드인 '프라임 드래프트'에 대한 판매를 확대 한다고 밝혔다. 제3맥주로 불리는 '프라임 드래프트'는 이번 제휴로 카와소푸드사의 일본 내 영업·유통망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하이트맥주는 지난해 일본시장에 약 480만 상자(상자=350ml×24캔)를 수출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500만 상자 이상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맥스 더 프리미엄 에디션 한정 판매

하이트맥주가 1월 12일 '맥스 더 프리미엄 에디션'을 한정 판매하였다. '맥스 더 프리미엄 에디션'은 호주의 150년 전통 맥아장인기업 JWM(Joe White Maltings)에서 생산한 프리미엄급 맥아와 호주 청정지역 타즈메니아 섬에서 생산한 고급 호프를 사용했으며 맥아, 호프, 물 외 다른 부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100% 보리맥주다.

### S맥주, 선발대회 통해 공식모델 선발

하이트맥주는 식이섬유 함유 맥주 'S(에스)'의 2010년 공식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해 우승자 김재연(20)과 준우승자 정은혜(21)를 최종 선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15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성황을 이뤘으며, 이들은 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심층면접, 인기투표, 패션쇼 등의 열띤 경합 끝에 공식모델로 최종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S맥주 CF 및 화보 촬영, 방송 출연 등의 기회가 제공되며, S맥주의 공식모델로서 하이트맥주의 다양한 공식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롯데칠성음료 (주)



### '생태관광 바우처 프로그램' 후원 협약 체결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정황)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생태관광 바우처 프로그램'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월 17일 밝혔다.

생태관광 바우처 프로그램은 3월부터 약 10개월간 장애인,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생태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황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엄홍우 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4일 관리공단과 '국립공원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한 후원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태관광 바우처 프로그램과 국립공원 자연보호활동 등에 2년간 총 3억 5000만원을 후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창사 60주년을 맞은 롯데칠성음료는 창립기념일인 오는 5월 9일 전후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롯데칠성 임직원 환경정화 행사를 여는 한편, 여름에는 소비자와 점주를 대상으로 칠성사이다 환경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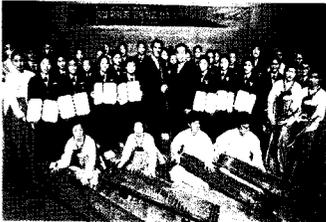
### 사랑의 헌혈 행사

롯데칠성음료는 12월 7일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과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다.

롯데칠성음료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단체 헌혈이 급감해 수혈용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본사 직원 70여명이 단체 헌혈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번 단체 헌혈이 이뤄졌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주)



### 국악 영재에 9,600만원 지원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대표이사 프랭크라베르)는 3월 3일 국립국악중고등학교 학생 36명에게 총 9,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국악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국립국악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장학금 지원 외에도 국악의 대중화와 학생들에게 국악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악 챌린지', 해외 유명 음악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유럽 음악 연수단'을 진행하는 등 해마다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국악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로얄 살루트 마크 오브 리스펙트 수상자 선정

제5회 로얄 살루트 마크 오브 리스펙트(Mark of Respect)의 수상자로 사진작가 김중만 씨가 선정됐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2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시상식을 갖고 스코틀랜드 전통 위스키 잔인 퀘익(Quaich) 모양의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00만 원을 시상했다.

상금은 수상자의 희망에 따라 국제 아동 후원 단체인 플랜 코리아에 전액 기부돼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의 골대 짓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임페리얼21년산 '국새 모양' 새단장

12월 16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모델들이 대한민국 국새에서 영감을 받아 병 모양을 '한국 전통의 멋'으로 새단장한 '임페리얼 21 그레이트 씨(Great Seal)'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선보인 임페리얼21년산의 병은 페르노리카코리아측이 제4대 대한민국 국새 제작에 참여한 전각 장인인 세불 민홍규 선생과의 협업으로 제작했다.

## (주)국순당 L&B



### 요트 국가대표 선수 후원

(주)국순당L&B(대표이사 윤동원)는 1월 12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대한요트협회와 우리나라 요트 국가 대표 선수들의 후원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국순당 L&B는 자사에서 판매 중인 와인 비나마르 전 제품의 국내 매출액의 2%를 지원하기로 협의하고 비나마르의 모든 제품군을 향후 3년간 대한 요트협회의 공식와인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 프로방스와인 '쎬블루' 독점 판매

국순당L&B는 '바이오 다이내믹' 기술을 통한 최상급 품질의 프로방스 와인으로 유명한 '쎬블루' (Chene Bleu) 3종을 독점으로 선보인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쎬블루'는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 몽 방투 골짜기의 550m 고도에서 재배한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 이 곳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포도 생육에 해가 될만한 각종 공해와 기타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지역이어서 최상급 품질의 포도를 얻을 수 있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술잔을 기울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 노르웨이 속담 -